

# BORYUNG

BORYUNG  
PHARMACEUTICAL  
GROUP  
MAGAZINE

2021 **SPRING**



BRING LIFETIME CARE

Vol. 402

3

Cover story  
낮선 곳에서의 동화  
A journey into Another World 2009

PART 1  
도전하다

6  
Work & Solution  
도전 앞에 선 당신을 위한 솔루션

8  
HashTag  
어제보다 나은 나,  
#챌린지로 #체인지!

PART 2  
10년의 도전, 카나브

12  
BR상상마당  
보령사람들, 카나브 10년 뒤를 상상하다!

14  
HOT BR 1  
카나브가 걸어온 10년의 발자취

18  
HOT BR 2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까운 동행  
카나브 10주년 심포지엄

20  
Best BR Team  
우리는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습니다  
보령제약 전북클리닉팀

24  
BR人 탐구생활  
슬기로운 원료합성 생활  
보령제약 생산본부 원료합성그룹  
이준광 수석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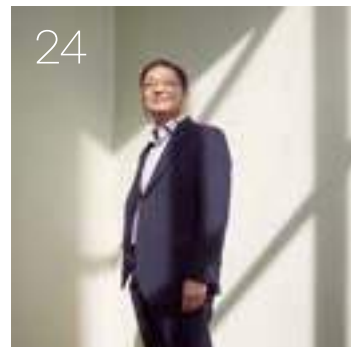
28  
Life  
화상 사회가 오고 있소

30  
People  
가늘고 길게 오세요,  
사랑은 뭉근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33  
보령의료봉사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다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

34  
BR It  
흥부에게 BRing한  
제비 박씨의 속사정은?  
보령컨슈머헬스케어 <BRing>

36  
BR News



BORYUNG  
2021 SPRING

보령 제39권 1호(통권 402호)  
발행처 보령홀딩스  
03051 서울특별시 북촌로 104 계동빌딩  
발행인 보령홀딩스 이준희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등록일 1982년 11월 27일  
기획·취재·편집 디자인 큐라인

사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분들은  
연락주세요.  
02.708.8424

Cover story

낮선  
곳에서의  
동화

글. 아트파크 권은지

제유성(1963~)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San Francisco Art Institute,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수료하고, 아트파크, 한가람미술관, 갤러리현대, 국립과천과학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제유성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보령제약, 토탈미술관, 현대아산병원, 산업은행, (주)신영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에 소장되어 있다.



A journey into Another World 2009 캔버스에 유화, 182x227cm

제유성 작가는 상상 속에서만 꿈꿔보던 세계를 캔버스 위에 펼쳐낸다. 다양한 시각적 언어들은 음악처럼 중첩되고 이어지며 하나의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 동화가 된다. 마치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작가의 작품 속에선 그 어떤 곳도 길이 될 수도, 문이 될 수도, 집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어떤 이야기도 펼쳐질 수 있다. 준비된 스케치 없이 단순한 곡선과 직선이 그려내는 예상치 못한 도형들의 모습은 추상도, 구상도 아닌 작가의 고유 언어이다. 화려한 색채를 가진 작가의 언어는 역동적으로 그려지며 캔버스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작품 속 세상은 우리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며 시선을 이끌지만 정작 시선이 나아가야 할 곳을 친절히 안내해주지 않는다. 장난감 주사위들 혹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듯한 아치 모양처럼 원근법을 따르지 않은 작품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제유성의 작품은 무엇인가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한다. 낮선 것에서 익숙한 것을 찾는 행위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아이가 장난감으로 상상해낸 세계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놀이 감각을 자극할 것이다. 이제 작가의 작품을 통해 낮설지만 익숙한 유토피아를 찾아보자.

# 1 도전하다

# Challenge

“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하죠.”  
레스 브라운\_동기부여 강사

“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라 로버츠\_미국 베스트셀러 소설가

“ 작곡을 잘하는 법은  
'일단 하는 것'입니다.”  
SUGA\_방탄소년단 멤버

“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_중국 문학가, 사상가

“ Just Do It ”  
나이키 광고 슬로건\_스포츠 의류회사

“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일한 죄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수엘렌 프리드\_미국 작가

스케이드 보드를 타는 청년의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유려한 스케이드 보드 묘기 영상이 아니고 한 묘기를 완성하기까지 100번이 넘는 실패와 도전의 테이크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묘기 영상을 기대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면서도 다시, 다시, 다시 시작하는 그의 지난한 시도들을 마치 무엇에 이끌린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스케이드 보드 위에 온전히 착지해 희열의 괴성을 내지러 때 영상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마치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거대한 단어 뒤에 도전과 실패가 공식처럼 따라온다는 것어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실패 가운데 '새로고침'을 누르며 다시 도전, 도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저 '한다', '해본다', '다시 도전'만이 정답이 아닐까요. 시도가 없으면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앞두고 계신가요?  
실패의 테이크 위에 서 있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Just Do It 하시길 바랍니다.

# 도전 앞에 선 당신을 위한 솔루션

## 도전을 미루는 당신에게

저는 미루기 대장입니다. 아침엔 모든 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점심을 먹고 3시쯤 되면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했나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땐  
추진력이 떨어지고, 주저하게 되고, 뜬금없이  
결국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좋나요?

### “속으로 5초를 세고, 5분 집중!”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혹시 열정의 온도가 100%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않나요?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준비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완벽을 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기지 않지만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도, 위대한 미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미루기의 대가였습니다. 밀도 끝도 없이 ‘따개비’에 빠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집필을 완성하기까지는 2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의뢰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그의 명작 <암굴의 성모>를 납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례만 본다면 미루는 행위는 창조적인 영감을 획득하는 시간을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는 ‘기한’이 중요합니다. 부서별 협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새로운 업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럴수록 빠른 판단력과 실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짧고 굵게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마법의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미루고 싶은 순간 마음속으로 ‘5초’를 세고 ‘5분’ 동안 집중하는 것입니다. 도전 앞에서 무력해지거나, 미루는 습관이 스스로를 잠식하려 할 때 카운팅 후 마음을 다잡고 5분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10분, 그 다음엔 30분 이렇게 집중의 시간을 늘려가면 작은 성취들이 쌓여 미루는 일이 얼마나 시시해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잊지 말고, 미루지 말고, 5초를 세고 지금 시작하세요.

## 도전을 무서워하는 당신에게

가끔 내향적인 성격의 나란 사람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거나, 영업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면 식은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기회도 몇 번 놓쳤고요. 제겐 도전과도 같은 일인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법, 없을까요?  
이 문턱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 “발표 전 2분, 화장실에서 자신만만한 포즈로 있어보세요.”

가끔은 내향적인 스스로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인싸’이길 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싸’이고 싶지도 않거든요. 뛰어난 언변도 갖추고 싶고, 멋있게 발표도 하고 싶은 그 바람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부교수로 있는 에이미 커디 교수는 8년 전, ‘신체언어가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Your Body Language may Shape who you are)’라는 TED 강연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강연은 다양한 해석을 자아냈고 비판도 많았지만, 파워 포즈(Power pose) 이론과 “흉내를 내라, 네가 진짜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라는 말은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회자되는 영상입니다.

에이미 커디 교수가 말하는 이론은 ‘바디 랭귀지도 랭귀지다’라는 것입니다. 2분 동안 두 손을 하늘로 뻗어 다리를 최대한 벌리는 포즈(하이 포즈)를 하는 것만으로 자신감을 부여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녀 자신 또한 19세에 큰 자동차 사고로 뇌를 다쳤고,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을 투자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아’하며 의기소침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지도교수가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흉내를 내, 네가 진짜 해내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하며 힘을 주었고, TED 강연에 그녀가 서 있는 것이 그 방증이었죠.

발표 전,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기 전, 사람들 앞에서 유려하게 말하기 전에 잠시 화장실을 가서 2분 동안 자신 있는 파워 포즈를 취하며 자신감의 바디랭귀지로 예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라톤 선수인 우사인 볼트가 하늘을 향해 쪽 뻗은 손 끝을 바라보는 시그니처 포즈를 자신감 있게 취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속여보세요, 외향적인 부캐를 얻을 때까지요.

글. 편집실



최초로 그래미와 아카데미에 각각 노미네이트 된 가수 BTS와 배우 윤여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당장 무엇을 할지 망설여진다면, 지금 이 글을 읽어보고 마음에 도전이라는 해시태그를 새겨보자. 내일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글. 편집실

## 어제보다 나은 나, #챌린지로 #체인지!

# #Challenge #Change

### #업글인간

업글인간은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 개발형 인간을 이르는 말'인 동시에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며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스스로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한다. 건강과 취미, 여가활동, 지적 성장을 위한 소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성을 가진 반면 업그레이드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은 개선해나가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책 읽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휴대폰 와이파이를 꺼버리거나 집 공간 중에 No Wifi Zone을 만들어 그 곳에서 하루에 몇 시간 집중해서 기필코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자아성장에 대한 도전으로 진짜 '나'와 마주하는 경험을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듯, 내일의 나도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잊지 말자.

### #오하운

어릴 때 선망하는 어른의 모습은 돈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었지만, 다 자라서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은 '코어'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것이 일상의 코어이든 신체의 코어이든 내외면의 건강 관리는 필수 덕목처럼 여겨진다. 요즘 운동의 계기는 옛날처럼 마지못해 하는 운동이나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면서 하는 다이어트와는 다르다. 내 건강을 내가 키워나간다는 '성취감'과 성장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측면에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많이 쓰이는 해시태그인 '오하운'은 '오늘 하루 운동'의 줄임말로 요즘의 운동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살 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다. 내 몸과 건강을 위한 운동에 집중하며 매일,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운동 챌린지'다. 그러면서 일상의 코어도 함께 다스리며 도전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뻗뻗한 몸을 풀어주는 것부터 '오하운'을 실천해보는 것도 좋겠다.

### #미라클\_모닝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라는 박명수 식 명언을 들어본 적 있는가. 요즘에는 이 말이 딱히 통하진 않는 것 같다. 아침 1시간을 금쪽같이 쓰는 직장인, 학생들이 많아지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기회를 잡는다'가 공식이 되어버렸다. 2021년 3월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미라클 모닝' 해시태그를 검색하니 31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1시간을 앞당겨 일어나 독서, 명상, 필사, 차 한잔하는 루틴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하고 있다. 애플 최고 경영자인 팀 쿡, 전 스타벅스 회장인 하워드 쉘츠 등 명사들도 이미 실천에 옮긴 미라클 모닝 열풍은 하루를 깨우기 전, 고요하게 나를 마주하는 루틴으로도 유명하다. 평소 기상 시각에서 1시간 내지는 30분만 일찍 일어나 하루를 깨워보는 루틴을 만들어보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기회를 잡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믿어보자.

### 포기하지마!!! 작심백일 메이트

#### APP 챌린저스



공유와 인증을 통해 습관 형성을 돕는 '챌린저스'가 다른 챌린지 프로그램과의 다른 점은 '돈'을 걸고 도전한다는 것. 비슷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낸 돈이 모여 기금이 되고 이후 성공한 사람들끼리 기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실패하면 돈도 도전도 리셋.

ⓧ 하루에 물 1리터 마시기, 주 4회 산책하기 등

#### APP 카카오프로젝트100



'카카오프로젝트100'은 100일 동안 한 가지 주제를 통해 작은 습관을 실천하고 만드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시즌제로 운영되며 미션 수행 기간이 다른 챌린지 프로그램과 달리 1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뤄진다는 게 특징.

ⓧ 부모님께 3일에 한 번씩 연락하기, 주 2일 영어 가사 10줄 이상 쓰기 등

#### 온라인 프로그램 밈미(MeetMe)



일명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밈미'는 좋은 습관 형성을 돕는 온라인 리추얼 프로그램이다.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며, 치유과 위로로 내외면을 다스리고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형성하는 것이 주목적.

ⓧ 하루키처럼 달리고 글쓰기, 매일 아침 명상하기 등

## 2 10년의 도전, 카나브

# Kanarb

실패도, 포기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기회로 회복했지만, 낙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과 신화가 그러하듯,  
좋은 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한다는 보령의 신념이 이겼습니다.

10년 간 그 진심을 인정받았고,  
뚜벅뚜벅 걸어가던 카나브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 10년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듀카로**  
(피마사르탄+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2020년 출시



**아카브**  
(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2020년 출시



**투베로**  
(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2016년 출시



**듀카브**  
(피마사르탄+암로디핀)  
2016년 출시



**카나브 플러스**  
(피마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013년 출시



**카나브**  
(피마사르탄)  
2011년 출시

# 보령인들, 카나브 10년 뒤를 상상하다!

조사기간 2021. 02. 19. - 02. 26. 참여인원 153명

보령인들에게 카나브의 지나온 10년과 앞으로 걸어나갈 10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웹진 BRing(webzine-bring.com)>이 물었습니다.

카나브 발매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카나브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2020년 카나브 패밀리  
연 처방액 1,000억 원 최초 돌파

**39.2%**

2014년 카나브 국내항고혈압제  
단일제부문 월매출 1위 등극

**16.3%**

2011년 카나브 국내 발매

**13.7%**

2010년 신약허가

**13.1%**

2020년 '단백뇨 감소' 적응증 추가,  
사용연령 확대

**9.2%**



2014년 카나브 해외(멕시코) 첫 발매

**2.6%**

2016년 세계고혈압학회  
(2016 서울 메인스폰서 참가)

**2.6%**

기타(우리가 만든 우리 고혈압 신약,  
2021 카나브 3제 복합제 FAH,  
예산공장에서 직접 시험생산(타정) 등)

**3.3%**

**보령인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건으로  
2020년 카나브 패밀리 연 처방액  
1,000억 원을 최초로 돌파한 것을 꼽았습니다.  
카나브 패밀리의 저력, 과연 대단하군요!**

카나브 패밀리 중에서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듀카로  
(피마사르탄+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2020년 출시)

**36.6%**

듀카브  
(피마사르탄+암로디핀, 2016년 출시)

**34%**

아카브  
(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2020년 출시)

**16.3%**

카나브  
(피마사르탄, 2011년 출시)

**10.5%**

카나브 플러스  
(피마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013년 출시)

**9.2%**

투베로  
(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2016년 출시)

**0.6%**



**보령인들은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제품으로  
듀카로를 꼽았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듀카브가 2위를 차지했네요.  
단일제보다는 복합제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카나브가 주도할 변화는?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카나브는 보령의 OOO이다!

카나브와 입사 동기인 나는  
카나브가 성장하는 만큼 함께  
성장해간다. 너의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파이팅!

전 세계로 성공적인 런칭과  
함께 K바이오의 위상을 널리  
널리 떨쳐주길 기대합니다!

카나브  
3제 복합제를 넘어  
4제, 5제까지...

카나브로 시나브로  
전세계 모두  
우리 브로(bro)!

보령제약 시총 10조 돌파,  
주주배당금 주당  
1천 원 지급!

예전 우리가 알던  
겔포스처럼.  
'포켓 안의 고혈압약  
카나브'

“김승호다.”

보령을 말할 때  
회장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듯,  
카나브 자체가  
보령이므로.

“보석이다.”

보령을 빛나게 하니까요.

“DNA다.”

보령의 모든 것을 담고,  
또 닮은 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금이다.”

생각만 해도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다.”

이순신 장군이란 한 사람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모두의 힘이 모여 임진왜란이  
승리로 이어졌듯이 카나브라는 한 제품이  
보령의 성공을 이끌고 있거든요.

“참쌀떡이다.”

보령과 카나브는  
떼려고 해도  
떨 수 없는  
사이입니다.

#매출, 권인, 효자김 #성공, 김양지 #수출, 김양지 #보령의 시그니처 #보령의 OOO이다! #카나브 #영웅##

# 카나브가 걸어온 10년의 발자취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한 ARB계열의 고혈압 약물 카나브. '고혈압 약물 중에서 가장 좋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의 의도처럼 발매 이후 꾸준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황제처럼 우뚝 섰다. 이제는 단일제를 넘어 복합제까지, 패밀리를 일구고 있다. 10년이란 세월을 우직하게, 굳건하게 성장해준 카나브가 걸어온 길을 짚어본다.

**9월 9일**  
신약 허가  
(국내 제15호,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



## 2010



**2월 28일**  
카나브 국내항고혈압제 단일제  
부문 월매출 1위 등극  
(유비스트 데이터)

**9월 23일**  
카나브 멕시코 발매(아라코)

카나브가 '아라코'라는 제품명으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했다. 진출 1년만에 국산 신약이 해외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 분야 1위를 차지하며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 2014

**9월 29일**  
듀카브, 투베로 동남아 라이선스아웃 계약 (출릭파마)

**12월 31일**  
카나브패밀리 연 처방액 500억 원(543억/라코르 포함) 돌파

## 2017

## 2011

**3월 1일**  
카나브 국내 발매

**12월 8일**  
대한민국기술대상 대상 및 10대 기술상 선정



## 2016

**8월 1일**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발매

**9월 24일 ~ 29일**  
세계고혈압학회 2016 서울 메인스폰서 참가

세계고혈압학회는 참가인원이 약 1만여 명으로 세계 의약계 최대 규모의 학회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학회에서 카나브 심포지엄이 이뤄진다는 것은 관심도와 영향력 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1월 1일**  
투베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발매



**7월 28일**  
카나브 싱가포르 발매



**8월 18일**  
카나브 말레이시아 발매



**10월 1일**  
카나브 러시아 발매

## 2018

## 2019

**4월 30일**  
카나브 필리핀 발매

**6월 6일**  
카나브 태국 발매

**8월 15일**  
듀카브 멕시코 발매 (아라코 듀오)



**2월 19일**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4종 발매

듀카로는 2020년 연간 64억원의 처방실적을 달성하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의약품들 가운데 유일하게 50억을 넘어섰다.

**12월 28일**  
카나브 사용연령 확대 승인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라는 적응증을 획득하며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카나브를 처방할 수 있게 됐다.

## 2020

**12월 30일**  
카나브 '단백뇨 감소' 적응증 추가 획득 승인

**12월 31일**  
카나브 패밀리 연간 처방액 1,000억 원 최초 (1,039억 원/라코르 포함) 돌파

## 2021

**3월 24일**  
카나브 10주년 심포지엄





## 카나브의 기록들

제 **15** 호  
국산 신약

순수 국내 기술과 원료로 개발

국내 **60** 여 대학병원,  
**2,000명** 이상이 임상 시험에 참여

약 **57,000례**  
한국인 최다 임상 통해 강력한 혈압감소효과를 입증

**4상** 임상 **PMS** (시판 후 조사임상) 진행

국내 **최초**, 세계 **8** 번째

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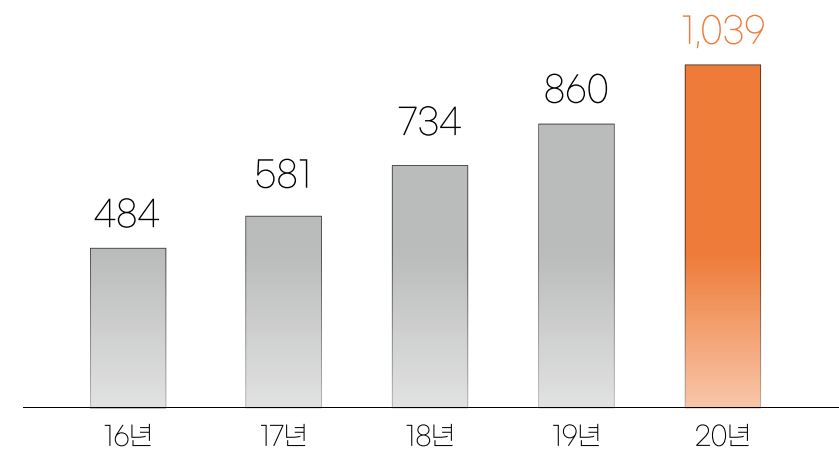
**106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 가치 입증

국내 고혈압 환자

약 **10** 명 가운데  
**1** 명은 카나브 복용 중

카나브 패밀리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0년 기준 70만 명,  
국내 고혈압 환자(900만 명)의 8%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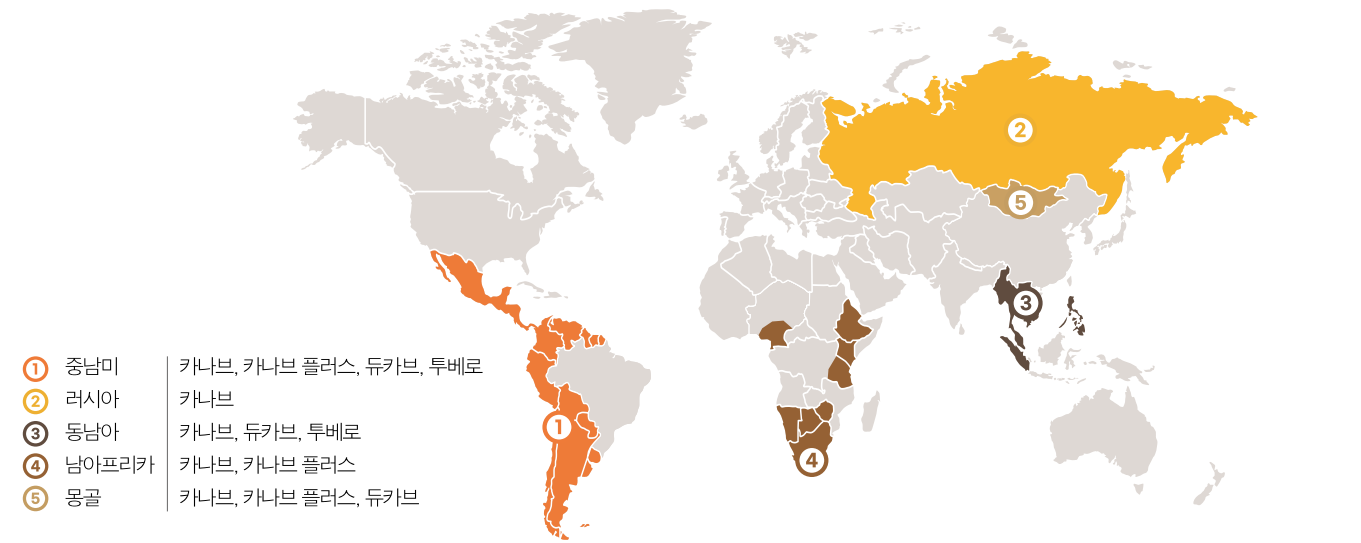
카나브 패밀리 연간 처방액 (단위: 억 원 / 자료: 유비스트)



## 벽을 넘어 글로벌 다리를 만든 카나브 패밀리



도전 자체가 벽이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글로벌 고혈압약으로, 점차 장악력을 넓혀가는 카나브 패밀리. 글로벌 브릿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세계에 보령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의 발자취와 앞으로 새로운 다리가 놓일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며 다음 10년을 기약해본다.



계약체결 시기	국가	제품	계약 상대사
2011년 10월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카나브(현지명 아라고)	스텐달(Stendhal)
2013년 1월	러시아	카나브	알팜(R pharm)
2013년 7월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카나브 플러스(현지명 디 아라고)	스텐달(Stendhal)
2015년 6월	싱가포르 등 동남아 4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카나브	제노백스(Zanovex)
2016년 9월	멕시코 외 중남미 25개국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카나브, 카나브 플러스	스텐달(Stendhal)
2016년 9월	멕시코 외 중남미 25개국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듀카브(현지명 아라고 듀오), 투베로(현지명 아라고 프레)	스텐달(Stendhal)
2017년 6월	남아프리카 10개국(남아공 외 9개 국가) - 카나브 남아프리카 10개국(케냐 외 7개 국가) - 카나브 플러스	카나브, 카나브 플러스	키아라 헬스 (Kiara Health)
2017년 9월	싱가포르 등 동남아 4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듀카브	제노백스(Zanovex)
2020년 7월	몽골	카나브, 카나브 플러스, 듀카브	옵볼(Ombol)

(자료 : 보령제약 2020 3분기 보고서)

#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까운 동행

## 카나브 10주년 심포지엄

3월 24일, 보령제약의 효자상품인 카나브의 열 살 생일을 맞이하여 '카나브 1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보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카나브. 그 역사적인 현장을 방문해봤다.

글. 민정민 사진. 안용길



### 10년 간의 동행, 앞으로의 100년

남산 하얏트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진행된 '카나브 10주년 심포지엄'에 김승호 명예회장, 김은선 회장, 안재현 대표와 주요 임원진들은 손님맞이로 분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인원은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구성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접속해 멀지만 가까운 마음으로 카나브 10주년을 축하했다.

사회자인 공지영 아나운서가 오프닝을 알리며 행사의 막이 오른 동시에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슬로건에 맞춰 오프닝 영상이 이어졌다. 카나브 출시와 함께 쌓아온 다양한 성과들, 역사와 주요 매출, 미래 비전이 붓글씨 캘리그라피를 통해 시간 순으로 그려졌다. 행사의 메인 키워드인 '동행'이 화면 가득 떠오르며 앞으로도 보령은 카나브 패밀리와 함께, 또 환자와 사회의 소외계층들과 함께 걸어나가겠다는 뜻을 담아냈다.

안재현 대표는 "카나브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다"며 "가장 많은 임상증례수는 물론 106편의 연구논문으로 우수함을 증명하며 국내에서 고혈압 치료제로 새 역사를 썼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카나브 발매 10주년의 감동적인 소회를 밝혔다.



# Kanarb

### 마음이 묻고, 과학이 답하다

이어서 진행된 학술강연은 각각 좌장으로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 위앤장이원표내과 이원표 원장이, 연자로는 분당 21세기의원 김한수 원장, 연세의대 박성하 교수가 맡았다.

보령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인술을 베푸는 마음'에 대한 해법을 얻기 위해 과학을 통해 답을 찾아왔다. 이 발표로 보령이 연구개발과 신약개발 등을 통해 질병과 싸우며 치료를 위한 'Cure'를 넘어,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돌보는 'Care'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는 깊은 뜻을 전했다.

본격적인 내용들은 '발매 10주년 카나브 · 고령사회에서 심혈관 질환 최소화를 목표로'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다뤄졌다. 고령 고혈압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카나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개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와 임상실험,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왔던 활동들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곧 신제품으로 출시될 3제 복합제에 대한 네이밍 공모전 결과 발표는 '듀카브 플러스'가 1위를 차지했다. 새로운 카나브 패밀리 신화의 서막이 오르며 지나온 10년보다 바라보는 100년의 기대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보령이 카나브 패밀리와 동행하며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꽃피던 자리였다.



전북에 있는 개원의들에게 보령제약의 가치와 제품을 소개하는 보령제약 전북클리닉팀. 모두가 힘들다고 했던 2020년, 전국 2위 실적이라는 자체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노하우를 물어보자 이들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는 영업의 비기는 '사람', '팀워크', '소통'이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기에 이들은 가치를 사람에게서 찾고 돌려주기 위해 올해도 고군분투 중이다.

글. 민정민 사진. 안용길

## 우리는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습니다

보령제약 전북클리닉팀

### 신뢰를 동력 삼아 활동

보령제약 전북클리닉팀은 전라북도 개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보령제약의 가치와 상품을 세일즈한다. 의원 경로를 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정보사항 및 최신 의·약학 이슈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등 보령제약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지역 내에서 보령제약 M/S 1위를 목표로 달리고 있을 만큼 열정적인 전북클리닉팀. 이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에는 팀워크가 한몫했다.

먼저 전북클리닉팀은 보령제약의 비전 방향성에 맞춰 팀 전체 의견을 취합하고 이에 맞는 개개인의 비전을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보령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팀원별 고객별 니즈를 분석하는 마케팅도 설계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자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좋은 고객들과 인연이 되기도 했다. 서로 인간적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여러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

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것이 팀 전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이태영 사원은 여기에 각자의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더욱 시너지를 발휘한다며 전북클리닉팀의 팀워크를 자랑했다.

“전북클리닉팀의 차별성은 '책임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감은 각 거래처에 대한 꼼꼼한 '마이크로(Micro) 마케팅'과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이어져 좋은 성과를 창출했어요. 팀원들 간 성공, 실패 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해간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작년, 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반면에 영광이 공존했던 해이기도 하다. 사실상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재택근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클리닉



좌측부터  
김종국 주임,  
공병석 주임,  
이태영 사원,  
김민석 팀장,  
김선우 사원,  
함준석 사원,  
최규용 대리,  
이기수 대리



팀은 아카브 전국 2등, 듀카로 전국 5등의 실적을 달성하는 저력을 뽐냈다. 팀원들이 생각하는 성장의 이유는 무엇일까. 함준석 사원은 “작년 초에 지역담당자가 변경돼서 일부 지역 이동이 있었습니다. 팀 업무 초기 세팅을 거의 다시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위에서 잘 끌어주시고 밑에서 잘 따라와준 덕분에 오히려 발전의 기회가 됐습니다”라며 팀원 간 믿음을 성장의 동력으로 꼽았다.

작년의 성공적인 실적에 대해 열거하자면 카나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실제로 카나브를 복용하고 있는 김종국 주임은 직접 약효를 체험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카나브 영업 시 본인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저는 실제로 고혈압 가족력이 있어서 카나브 30mg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약을 처방 받고 복용하는 입장이다 보니 고객의 마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에 영업할 때 진정성과 힘이 함께 전달되더라고요. 그것이 또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개인이나, 팀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팀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진리**

식상한 표현일 순 있지만 팀원들이 입을 모아 표현한 전북클리닉팀은 말 그대로 ‘정말 좋은 팀’이다.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김민석 팀장의 어깨가 무거운 법도 한데, 손수 막내까지 신경 쓰며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을 다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고 도출하는 등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다고. 팀장도 팀원도 서로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전체적인 방향성이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다.

상호 간의 단단한 믿음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지라도 함께 머리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배우는 것들이 각자의 노하우로 착착 쌓여갔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보면 어때?’ 하면서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전북클리닉팀만의 문화는 의지와 자극을 한번에 주는 최상의 팀워크를 만들어냈다.

**각자의 행복을 설계하고 함께 걷다**

전북클리닉팀의 2021년 계획과 목표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김민석 팀장은 고민 없이 ‘카나브 패밀리의 동행과 성장’이라고 답했다. 그러기 위해선 팀원들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팀과 팀원이 있어야 실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직원, 팀, 실적에 모두 파란불이 뜬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팀과 팀원을 믿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태영 사원은 전국 실적 평가 1위와 실력 있는 MR로서의 발전을, 김선우 사원은 2년 안에 그룹 내 인센티브 상위 10%에 드는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그 기저에는 팀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팀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팀이 있기에 함께 노력하고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이들을 오늘날까지 있게 만든 게 아닐까. 업무 과정과 소통의 스킬,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모여 전북클리닉팀의 신뢰가 구축되었으리라 믿는다. 이 강력한 무기와 함께 2021년도 꾸준히 발맞춰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전북클리닉팀 — 김민석 팀장 “팀과 팀원이 있어야 실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직원, 팀, 실적에 모두 파란불이 뜬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팀과 팀원을 믿습니다.”



# 슬기로운 원료합성 생활

보령제약 생산본부  
원료합성그룹  
이준광 수석부장



원료합성과  
함께한  
시간이  
모두  
흥미롭고  
아름다웠다



드라마 <도깨비>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너와 함께한 시간이 눈부셨다’라는 대사가 있다면, 이준광 수석부장의 인터뷰는 ‘원료합성과 함께한 시간이 모두 흥미롭고 아름다웠다’로 함축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년 동안 연구와 탐구를 이어온 원료합성에 대한 소회와 카나브 생산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글. 이유정 사진. 안용길

### 원료합성이란 무엇인가요?

원료의약품은 살아 있는 세포를 배양해서 제조하는 ‘바이오의약품’과 여러 원료물질을 다양한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제조하는 ‘합성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료합성’이라 함은 의약품제조에 사용되는 활성성분 즉,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을 화학적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과정을 말합니다.

### 원료합성의 과정에 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제조과정을 보면 원료칭량-반응-냉각-농축-결정화-여과-건조-분쇄 과정의 반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부터 생산단계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먼저 연구단계에서는 제조공정에 대한 자료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합성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생산이 용이하고 경제성을 갖춘 최적의 합성과정을 확립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확립된 제조 공정을 생산시설에 맞게 공정 확인 및 변경을 통해 수십 킬로그램에서 수십 톤에 이르는 대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조과정이 개발됩니다.

“요리 1인분에 100g이 필요한 재료를 3인분에 300g을 넣는다고 맛이 비례하지 않듯이 원료합성도 이와 같이 매번 절대적인 값이 없습니다. 온도와 시간, 원료 성분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업무의 관건입니다.”



TMI

\*안산공장 원료합성동 생산라인  
中 카나브의 원료의약품  
피마사르탄 생산 현황

3 생산라인  
3개 라인

8 생산 인원  
8명

14~19 생산량  
연간 14~19t

**안산공장 원료합성동에서는 카나브 생산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카나브 생산 중 원료합성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원료의약품 및 중간체는 중국과 인도의 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카나브의 주성분인 피마사르탄은 자체 기술 특허를 수십 건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판매에서도 매출을 극대화함으로써 대량 생산 기반을 갖추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조원가를 낮춤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피마사르탄\*의 생산은 모든 제조공정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중요 핵심 공정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국산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료합성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적기 공급과 고품질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원료의약품은 그 자체가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과 불순물을 총칭하는 '유연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물질은 인체에 여러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료합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조과정 중에 이러한 불순물을 미리 설정된 규격에 맞도록 생산하고, 고품질의 균일한 원료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합성은 어떻게 보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100kg을 투입해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다양한 화학적 제조방법과 조건에 따라 80kg 때로는 50kg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순물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불순물을 최대한 적게 그리고 생성된 불순물을 정제하여 순도 100%에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저희의 일이죠.”



**안산 원료합성그룹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도전 과제가 있으실까요?**

20년 전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원료합성 부분이 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거대 생산능력을 가진 중국과 인도 시장이 제조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수급은 '제약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고 자체적으로 생산기반을 갖추는 건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생산 품목과 가동율을 높이고, 중점 대형 품목을 개발 생산하면서 가격 경쟁력 있는 품목을 늘려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원료합성그룹 구성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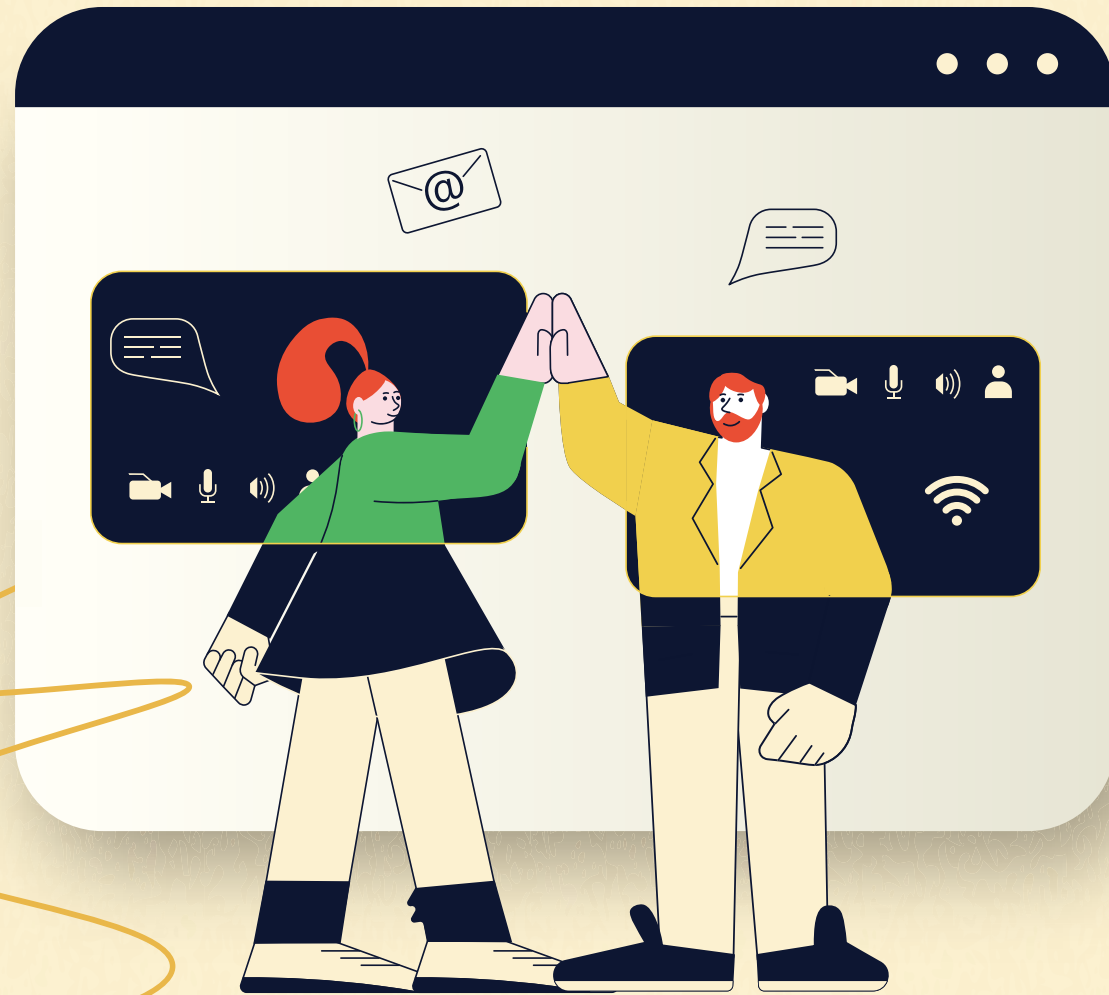
원료의약품의 신규발굴과 현장생산원료에 대한 공정개선을 담당하는 공정개선팀, 생산을 담당하는 원료 1, 2팀, 원료공정에 많은 노하우를 가진 합성R&D팀원분들. 연구부서와 생산부서의 조율이 특히 많이 이뤄지는 본부에서 최고의 협업을 보여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과 고품질의 원료의약품 생산을 차질 없이 해낼 수 있도록 힘내봅시다!



# 화상 사회가 오고 있소

2020년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 집콕, 화상 회의, 교육, 라이브, 랜선 화식 등을 해보셨을 테지요? 생각보다 가치와 장점이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 코로나19가 끝나도 이런 비대면 화상 문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앞으로 '화상 사회의 전망과 응용사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글. 황인선 문화평론가



**황인선** 현 (주)구루미 화상사회연구소장,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창조학과 겸임교수, 전 서울혁신센터장, 천마임축제 총감독, KT&G 마케팅/미래팀장, 제일기획 AE 등 역임. <컬처파워>, <동심경영>, <생각 좀 하고 말해줄래> 등 저서 다수.

## 어이구, 이 화상!

화상(畫像)은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을 뜻합니다. "어이구, 이 화상이"라고 조롱할 때 쓰는 한자도 이것입니다. 영어로는 Picture, Image입니다. 반면 영상(映像)은 1. 빛의 굴절이나 반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체의 상. 2.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나 광경. 3. 역사막이나 브라운관, 모니터에 비추어진 상인데 이것도 Picture, Image로 번역됩니다.

영상의 영(映)자는 '해(日)가 반사되어 가운데로 비춘다'는 뜻으로 광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TV 배후에 광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림자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움직이는 형상이 영상입니다. 화상과 영상이 영어로는 같이 번역되지만, 사전에 보면 화상은 사람의 얼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회의, 화상 교육 등은 서로의 얼굴을 이미지로 보면서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영상보다는 화상 용어가 더 적절할 겁니다. 화상 회의(畫像會議)는 통신 회선으로 원격 연결하여 텔레비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서로 화상을 보면서' 하는 회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가 있지요? 영어로는 Video / Web Conference로 번역됩니다. 여기까지는 어학사전에 나와 있는데 '화상 사회'는 어떤 사전에도 없습니다.

## 화상 사회가 열린다

이는 '화상사회연구소'가 만든 신조어라 그렇습니다. 이의 영어 표현도 사실 없는데요, Video / Web Society 등도 가능하겠지만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이 디택트, 언택트, 온택트 등입니다. 디택트, 언택트는 비대면을 강조한 단어인데 반해 온택트는 온라인 만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어표현으로 '온택트 소사이어티(Ontact Society)'를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사회라는 뜻이 강하지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화상 소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여러 활동(공연, 축제, 라이브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화상 사회가 그려낼 기업문화, 라이프스타일, 기술 영역에서의 변화를 담기도 좋아 보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전개될 변화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온택트 기술이 어떻게 향후에 믹스되어 쓰일 것인가?'입니다. 소상공인은 너무 힘든 데 반해 큰 기업들 상당수는 코로나19 기간에 오히려 이익이 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 덕도 크지만 화상 툴을 재택근무와 병행하면서 비용이 줄었던 이유도 큼니다. 얼마 전 대기업 중역이 "코로나19 후 기업관리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라고 묻기에 저는 여러 변화 중에 화상 협업 툴과 화상 사회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 미디어 변화를 꼭 넣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개념인 메타버스(Metaverse,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 사회가 거시적으로 오고 있고 재택근무, 화상 솔루션, 업무공간 개념 변화(페이스북은 이미 인피니티 사무실 개념을 제시), 거기에 개인 페르소나의 변화(본캐, 부캐, 아바타 등)를 전망하면 반드시 기업이 고려할 미래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번 봄 칼럼을 시작으로 화상 사회의 현황과 전망을 시리즈로 기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상 사회의 긍정적 변화,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론, 요즘 완전 뜨고 있는 오디오 기반 소셜네트워크인 '클럽하우스'와 화상 사회 비교, 향후 기업이 채용할 기술과 기업 소통 / 업무방식 변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면 화상 사회를 진지하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간소개

**<저부터 MCN이 될래요>**  
(3천만 직장인을 위한  
'미친' 워라밸 프로젝트)  
저자 | 황인선  
출판사 | 이세



"우리는 함께 미친 짓을 했고 그 미친 짓은 정상(NORMAL)이 됐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고별사에서 한 말이다. 그렇다. 우리의 삶이나 일이나 미친 열정이 없으려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아니 이룬다 하더라도 만족스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저자는 직장 3.0시대를 살아내는 3천만 직장인들에게 'MCN(미친놈)이 돼라'고 제안한다. <저부터 MCN이 될래요>는 꿈, 끼, 강, 피, 꿀, 끈 '6n' 기질과 지향으로 세상에 대한 열의, 엉뚱한 발상과 실행력으로 살아내는 MCN 직장인의 애환, 재미, 감동 그리고 미래 아이디어를 다룬 책이다.

진정한 사랑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고, 희생하며, 온기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에 빛나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200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2006년에 처음 설립되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장애인·노약자·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성을 담은 그들의 꾸준함은 그들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다.

글 민정민 사진 안용길

## 가늘고 길게 오세요, 사랑은 뭉근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2006



2021

### 2006년 보건의약단체 봉사활동 시작

김화숙 사공협 고문은 “사공협은 보건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15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협 정책이사를 비롯해 여러 중진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시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보건의약단체와 기관이 협의회를 만들어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로 마

음을 모았습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5년 동안 합심해서 봉사한 보건의약단체 회원들에게 큰 영광이자 보람입니다.”

사공협은 보령제약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고 있다.

안혜선 사공협 위원장(의협 사회참여이사)은 “보령제약은 평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행사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공협과도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면서 “크고 작은 선행에 대한 규모가 남다르고 도움 또한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 지속됐던 해외 의료봉사, 네팔에서부터

안혜선 위원장은 가장 고생했지만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로 네팔 의료봉사를 꼽았다.

“사공협 설립 10주년 때가 마침 네팔 대지진이 난 이듬해였어요. 네팔 의료봉사를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았죠. 지진 복구도 되지 않았고, 아직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숙소부터 식사까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말 그대로 의료봉사

를 위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사공협은 3년에 한 번 해외 의료봉사에 나섰다. 2019년 캄보디아에 이어 2022년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봉사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료급식소·장애인 시설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의사회 사회협력팀 곽석철 팀장,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안혜선 중앙위원장(대한의사회 사회참여이사), 사회공헌협의회 김화숙 고문(김화내과의원 대표원장), 대한의사회 사회협력팀 서판숙 부장



**“가늘고 길게 오세요”, 깨달음을 얻다**

사공협이 행정업무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서판숙 의협 사회협력 팀 부장은 2008년 처음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다.

“성인 노숙인들이라 처음엔 무섭기도 했지만 봉사하고, 섬기려 간 입장이기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자’라고 생각했죠. 먼저 말을 붙이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자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처음 은평의 마을을 갔을 때는 시설 입소자들의 반응이 다소 뜨뜻미지근 했다. 한 분이 무심히 “이 곳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가늘고 길게 오세요”라는 말을 봉사자들에게 했고, 그 말의 무게는 아직까지 기억될 정도로 작지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봉사라는 것은 꾸준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사는 한번 가서 생색내고 오는 것이 아닌 소소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꾸준히 발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죠.”

사공협은 은평의 마을을 꾸준히 방문하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이제는 국내 구석구석을 누비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공협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문자 김화숙 고문은 “이제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곳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저희가 국내에서 서울과 강원도 등 수도권 주변에서 갈만한 곳은 거의 다 방문했는데, 다른 지역은 접근성 때문에 방문이 어려워 많이 가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국내에서 소외된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가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이나 전라남도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14개 보건의약단체와 기관이 연합해 탄생한 사공협이지만 다들 각 단체와 기관을 대표하다 보니 한 번 활동 계획을 세우면 참여도가 높다고 한다. 안혜선 사공협 위원장은 “사공협은 앞으로도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봉사 정신으로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렇게 뚝뚝 뭉쳐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란다.



**보령의료봉사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다**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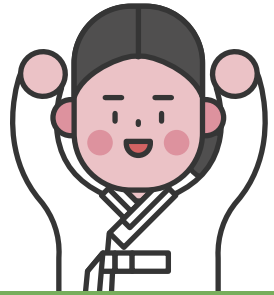


3월 17일 보령제약 본사 중보홀에서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에는 30여 년 동안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철성 사무총장(로즈클럽인터내셔널), 연간 36,000여 명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경중 회장(서산축탁의협의회), 2008년 7명의 의사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전 세계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고 2,500여 명의 의료봉사 참가자가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굿뉴스월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선정됐다. 14개 보건의학단체의 대표로 사회공헌협의회 안혜선 중앙위원장이 수상소감을 발표했다.

“2006년도 처음 단체를 설립했을 때, 단체들끼리 거의 유대관계가 없었습니다. 친목을 통한 봉사를 바탕으로 약사, 병원, 의사들이 합심을 해왔죠.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자 등에게 의료봉사 및 노력봉사를 하며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미약하지만 사회의 작은 등불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지내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사회공헌협의회에서는 지금의 이 상이 하나의 큰 선물이라고. 또한 사회공헌협의회 태동 때부터 헌신해온 김화숙 고문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협의회는 위상에 걸맞은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흥부에게 BRing한 제비 박씨의 속사정은?

보령컨슈머헬스케어 <BRing>



평소 건강과 환경을 지극히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흥부, 어느날 영험한 제비가 'BRing'해준 박씨를 심었더니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글. 편집실

평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유명한 흥부!  
환경을 생각해서 매번 옷이 누더기가 되도록 기워 입고,  
건강을 생각해 집 앞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영험하게 생긴 제비가 물었다 준 박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주렁주렁 자라구려. 오늘 우리가 박을 수확하고 타서 아이들에게 맛점을 선사합시다!

드롭 더 비트! 쇼미 더 제비!  
BRing 더 박!!

제비가 물었다 준 박을 타니, 팽!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은보화 부럽지 않은 BRing 종합선물세트가  
와르르르 쏟아진다!

건강과 환경에 해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내가 보기에 이걸 틀림없이  
BRing 종합선물세트구려!!



에그머니나, 여보 이게 뭐예요?



이 BRing 스킨카밍 마스크 KF94를 내 실물로 보게 되다니, 참으로 놀랍구려! 이 마스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루종일 편안한 들숨날숨을 만들어주는 친환경 천연 한지와 순면의 복합구조 프리미엄 안감으로 구성된 마스크라오.** 한지는 섬유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 공기의 소통 및 순환을 시키는 특징이 있지요.



요즘 같은 시국에 들숨에 신선한 공기를, 날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신박템**이란 말이에요? 애들아 어서 이 마스크 끼고 나가렴~



여보 이걸 당신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이요. **BRing 퓨어웨이 C 1000!!!** 피부미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너.뷰.티.템! 건강과 환경을 지극히 생각한다면 응당 비타민도 자연 유래 원료로 만든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소 여보!



여보, 황달인 당신을 위한 **BRing 리버 허브씨슬**이네요. 특히 식약처 인증 기능성 원료인 밀크씨슬추출물 1일 섭취 권장량 100%를 충족시켜주니 이거 하나로 간건강은 원샷원킬이겠어요. (감동)



딸바보인 나의 눈에 들어온 제품이 하나 있소. 바로 **BRing 식물성프로틴 그레놀라**요. 모든 원료에 대해 비건(Vegan) 인증을 받고 식물성 원료로 구성된 저칼로리 제품이지요. 다이어트하는 우리 일곱째 딸에게 주면 안성맞춤이겠어요.



흥부 내외는 뜻밖의 횡재에  
기뻐서 얼싸안고 춤을 추는디!

이때 영험한 제비!

흥부 내외 머리 위를 빙빙 돌다 말한다!



다리 고쳐주신 은혜 갚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신 거 같아 정말 기뻐요! 이걸 새로운 박씨인데 심으면 자라서 다음 BRing 신제품들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인성 무엇?! 제비야 정말 고맙다. 내년에도 이맘때 또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어머 제비 씨, 큰 거 해준 것도 아닌데 덕분에 호강하네요! 이왕 받는 김에 제비가 BRing해주는 BRing! 내년에도 기대하도록 할게요. 풍성하게 부탁해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다음 박 주인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오~!

한편, 흥부네처럼 박을 탔지만,

도깨비들이 쏟아져 나와

집안이 품비박산 난 놀부네는 과거를 뉘우치고 흥부네 찾아와 BRing 선물세트 나눔을 받으며 형제애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훈훈)

B R N E W S



###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 제2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수상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이 '제2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약바이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월 16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약바이오부문 시상식을 갖고 김승호 회장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약업계 노력과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공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약품유통협회 등 약업계 3개 단체가 지난해 공동 제정한 상이다. 제약바이오부문에 선정된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은 1967년 용각산, 1975년 켈포스 발매를 통해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국민 의약

품 개발에 힘쓴 것은 물론, 원료의약품 국산화, 고혈압 치료신약 '카나브' 개발 등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대한약사회 회장, 한국약품유통협회 회장 등 3개 단체장은 "김승호 회장은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내 최초의 고혈압신약 개발 등으로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오신 분"이라며 "평생을 제약업계에서 헌신하며 국가경제발전 기여하신 분에게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드리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승호 회장은 "약업계를 대표하는 큰 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령제약, '카나브 발매 10주년'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보령제약이 '카나브 발매 10주년 심포지엄'을 지난 3월 3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카나브 학술 강연을 주 내용으로 진행됐다. 학술 강연에서는 고령고혈압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카나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개했으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시접속자 3,475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 보령제약, 예산군에 마스크 기부



보령제약이 2월 26일 예산군에 KF94 마스크 5,000매를 기부했다. 기부된 마스크는 예산군 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보령제약은 의약품 제조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실천하고 나눔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

### 보령제약, 'SNB-101'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보령제약과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가 2월 23일 세계 최초 나노입자 항암제 'SNB-101(성분명 나노화 SN-38)'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보령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SNB-101'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제품 발매 후 10년간 보유하게 된다. 양사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15개국에 대한 독점 판매권과 관련한 추가 계약 체결도 현재 협의 중이다.

### 보령바이오파마, 국내 제조 A형간염백신주 출시



보령바이오파마는 국내 최초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 진행한 '보령 A형간염백신주'를 지난 2월 3일 출시했다. 3월 2일에는 A형간염백신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해 임상시험 결과와 A형 간염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령바이오파마는 A형간염백신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 개발에 착수, 최초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허가 임상을 진행해 2020년 12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위 건강기능식품 '위엔포스' 출시**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건강 솔루션 브랜드 'BRing'의 위 건강기능식품 '위엔포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BRing 위엔포스'는 식약처 인증 개별인정형 원료인 감초추출물이 주원료이며 비타민B1, 비타민B6, 나이아신, 베타카로틴 등 기초영양소 4종을 함께 배합한 국내 최초의 감초엑상 위 건강기능식품이다. 위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원활한 신진대사와 신체 밸런스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스윙스와 함께한 '겔포스' 광고 온에어**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래퍼 스윙스와 함께 랩버전의 새로운 겔포스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새로운 겔포스 광고는 지난해 선보인 광고의 '요즘 속쓰림'에 대한 메시지를 최근 국내 힙합씬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래퍼 스윙스가 본인만의 스타일로 트렌디하면서도 직관적인 랩으로 재해석해 표현했으며, 이를 통해 속쓰림에 대한 3040세대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BRing 신제품 3종 출시**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건강 솔루션 브랜드 'BRing'의 단백질 제품인 '브링 식물성프로틴 그레놀라' 3종을 와디즈 펀딩 플랫폼을 통해 출시했다. 와디즈를 통해 출시한 '브링 식물성프로틴 그레놀라' 3종은 100%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원료에 대해 비건(Vegan) 인증을 받았다. BRing의 다양한 제품들은 공식 온라인 몰인 '브링몰(bringmall.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용각산쿨' 패키지 리뉴얼 진행**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용각산쿨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제품의 정체성 및 효능효과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보령 제약 용각산을 포함한 OTC 전체 제품의 마케팅 및 유통을 총괄하고 있다. 젊고 트렌디한 감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에게 용각산쿨이 필요한 상황과 제품효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령 <웹진 BRing> OPEN!**

**BRing**  
WEBZINE



난리났네~ 난리났어!  
2021년 1월, 화려하게 OPEN한 <웹진 BRing>! 혹시,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보령의 인물, 팀, 제품, 행사, 사내문화를 알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라고 꼭 알려주세요!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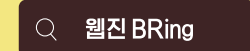
**TIP!**

카카오 플러스친구에서  
보령 <웹진 BRing>과  
친구 맺으시면  
매 호 오픈일을 알려준대요!



Step 1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아이콘을 눌러주세요.



Step 2

검색창에 '웹진 BRing'을  
입력하세요.



Step 3

'웹진 BRing'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 헛기침 목의 이상을 알리는 증상입니다

기관지 쿨케어  
**용각산 쿨**

